

잘못된 대학문화, 바로잡아야 한다

고 학 응 조선일보 논설위원

우리네 전통 혼인 풍속에 '신랑 매달기'가 있었다. 신부집으로 신행(新行)은 신랑을 동네 청년들이 대청 대들보 등에 매달아 놓고 혼지검을 내는 이를테면 '통과의례'인 셈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빨래 방망이 등으로 신랑의 발을 두드리며 한턱 단단히 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풀어주는 정도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심한 경우는 신랑이 걸음을 옮기지 못할 만큼 다치게 하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신랑이 같은 동네 출신이면 대체로 관대했으나 다른 동네에서 온 경우는 툭툭히 혼쭐을 내는 게 상례였다. 아마도 거기에는 동네 처녀를 남에게 빼앗긴다는 박탈감과 시샘이 깔렸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풍속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혼인방식도 달라져 이제는 사실상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 같은 '통과의례' 방식이 대학가에서 되살아나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이다. 선배인 재학생들이 '신입생 길들이기' 방식의 하나로 '환영회'란 이름의 회식자리를 마련해 이른바 '사발주'를 억지로 먹이다 목숨을 잃게 만드는 불상사가 드물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무슨 동아리회장을 뽑아놓고 술을 먹이며 이런 저런 약속을 받기 위해 뒤통을 하는 풍습도 이학교에서 저학교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이 서로 대화도 나누고 친목도 돈독히 할 겸, 이런 저런 모임을 갖고 그 연장선상에서 술잔잔씩 기울이는 모습이야 그야말로 그림같은 아름다운 정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 기성인들 대부분이 그와 비슷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보람있는 캠퍼스 생활을 보내도록 하기 위해 적극 권장할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나침에 있다.

공자(孔子)가 총애하는 제자 중에 자장(子張)과 자하(子夏)가 있었다. 또 다른 제자인 자공(子貢)이 두 사람을 비교해 달라고 공자에게 청했다.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노라." "그렇다면 자장이 나은 것입니까?"란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침은 못미침과 같으니라(過猶不及)." '과유불급'과 관련된 고사(古事)이다. 그런데 요즘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통과의례와 음주문화는 과유불급의 정도를 뛰어넘고 있다. 못미침과 같은 정도의 지나침이라면 차라리 예교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나침이 인명까지 앗아갈 정도라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생한 2명의 익사사고는 잘못된 통과의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 대학 '철학동아리' 회원 20명은 지난 5월 18일 밤 학생회관 내 동아리방에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뒤 신입회장을 연못

에 던져 넣는 의식을 가졌다. 그런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신입회장은 허우적거리며 연못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 학생 4명이 뛰어들었으나 회장을 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한 명마저 익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철학 동아리 회원들이 신입회장을 교내 자하연이란 연못에 던져 넣는 '의식'은 80년대 후반부터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통이 비단 이 동아리뿐 아니라 다른 동아리에도 거의 공통으로 번져 있는 모양이다. 서울대 직원 말에 따르면 동료학생을 연못에 집어넣는 일이 하루에 몇 차례씩 반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여학생이 빠져 비명을 지르는 일도 드물지 않았더니 '대학생 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과격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잘못된 전통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에서 성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서글픔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 대학생들이 '낭만', '전통'의 이름 아래 사발주 돌리기, 동아리회장 골탕먹이기, 생일맞은 동료 구타하기 등 비지성적인 캠퍼스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커녕 오히려 더욱 부풀려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대학생들도 여러 행사 때 축하모임을 갖는 것은 일반화돼 있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무자비하고 과격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건전한 놀이문화, 캠퍼스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유독 가학적이고 과격한 캠퍼스문화에 젖게 된 이유는 뭘까? 한번 시작했다하면 코가 비뚤어질 정도로 마셔대며 추태까지 부리는 기성세대의 음주 문화와도 무관하지 않겠지만, 갑작스런 해방감 탓이 가장 클 것이다. 고등학생 때 입시준비에 매달리느라 놀이 문화 등과는 담을 쌓고 지내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고삐가 풀리듯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 자제력을 잃고 속도위

반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사춘이 땅을 사면 배 아파 한다."는 전래의 속담이 있다. 남이 잘 되면 시샘하고 시기하는 우리네 풍토를 풍자한 말이다. 동아리회장을 골탕먹이고 신입생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가학적 행위는 다분히 이런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에 뒷전으로 밀쳐 둔 채 지나칠 정도로 음주문화를 탐닉하는 바람에 캠퍼스 안팎이 온통 알코올 냄새로 진동하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다. 흔히 대학을 '학문의 전당', '지성인의 전당'이라 부르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장래의 흥망성쇠는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달려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올해는 20세기를 마감하는 해다.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새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해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과 대학생들도 이쯤에서 각오를 세로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잘못된 문화나 풍습은 깨끗이 정리하고 진정 지성인다운 면모로 21세기를 맞으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변할 때 우리 나라의 장래도 희망이 있다. 지금처럼 술독에서 허우적거리다시피 하며 귀중한 대학생활을 허송할 때,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가 낙오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민**

고학용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조선일보사에 입사해 사회부기자, 동사 차장, 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일선 기자 시절 다년간 교육 분야를 담당했으며, 서울시교육위원회 장학위원,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등 대외활동을 거쳐 현재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